



결핵인물열전 ㉔

## 국가결핵관리의 초석을 다진 송 달 호(宋達鎬)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독학으로 의사가 되고, 정통 영어를 구사하며 보건소장을 역임하고 초대 결핵연구원장으로서 공중보건과 결핵관리사업에 헌신하다가 일찍 타계한 천재의사 송달호는 인지하고 겸손하며 포용력 있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 독학으로 의사가 되다

송달호는 1916년 12월 26일 5대조의 선산이 있는 지금의 대전직할시 중구 문화동에서 부모 송재풍(宋在豊)과 풍산 홍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상경한 그는 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를 다녔으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규 의학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유배달을 하는 등 독학으로 의사검정시험을 준비했다.

광복 다음해인 1946년 2월 마침내 의사검정시험에 합격한 그는 바로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주재 공의(公醫)로 발령을 받아 1950년 6월까지 성실히 그 곳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다. 특히 1946년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창궐한 콜레라 방역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했

다. 그는 4년 여의 공의 생활을 통하여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결핵과 기생충 질환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검정의사들이 개업을 하여 안주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그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예방의학 쪽으로 진로를 잡고 1952년 12월에 상경하여 용산 보건소장으로 부임했으며, 1961년 6월까지 종로보건소장도 역임하면서 서울시민의 방역과 결핵, 기생충 및 성병관리와 예방접종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건소장 재임중 특기할 사항은 보건소법의 초안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1958년 8월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

격을 취득했으며 1959년에는 5개월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동남아의 보건행정 및 관계 기관을 시찰하여 국제적 시야를 넓혔다. 그리고 농어촌과 도시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다양한 체험을 토대로 1962년 1월부터 가톨릭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강의했다.

1962년은 우리나라가 WHO의 기술지원을 받아 보건소망을 통한 국가결핵관리 체계를 출범시킨 해였는데 보사부에서는 국가결핵관리를 추진할 인재를 모색하던중 그를 발탁하게 되어 그는 1962년 12월 보사부 만성병과 결핵 담당관으로 부임했다. 그 때 보사부에서는 WHO 고문관 유진 로

우(Eugene Low)라는 중국계 캐나다인 의사가 우리나라 결핵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재하고 있었는데 송달호는 그의 카운트 파트로서 일했다.

보사부에서는 1962년 WHO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결핵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영등포보건소에 시범결핵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WHO는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UNICEF는 필요한 차량과

기자재 등 물자를 제공하고 보사부는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3자 공동사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주재한 WHO결핵고문관 유진 로우와 그의 카운트 파트였던 송달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그는 1963년에 2개월간 일본과 대만의 결핵관리사업을 시찰하고 1964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 4차 국제항결핵



1970년 1월 30일 서울 중구 충무로 37가 59-11 대한결핵협회 현관에서 새로 발족한 결핵연구원의 현판식이 있었다. 왼쪽 송달호 초대연구원장, 오른쪽 이재규 결핵협회장.

연맹 학술대회와 연이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차 WHO 국제결핵관리 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결핵관리 실태를 보고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1965년부터 결핵협회에서 추진한 결핵 예방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67년 법률 제 1881호로 공포되었는데 그 초안을 성안하는 데 있어 송달호의 공이 컸다. 그는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관계 법률과 정보



1971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제2차 WHO서태평양 결핵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송달호 결핵연구원장(좌)이 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으로서 발견된 모든 결핵환자를 보건소에 등록시켜 기준처방에 따라 치료를 했다. 우리나라 국가결핵관리의 길을 열고 기반을 다지는 초기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송달호가 있었다.

보건소의 등록환자 치료에 있어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1966년 6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필리핀 대학교 보건대학원 전기과정과 일본결핵연구소의 국제결핵전문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며 공중보건과 결핵관리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제적 기법도 공부했다.

효과적인 병용요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늘 마음 아파했다.

### 결핵연구원 초대원장으로

1968년 8월 대한결핵협회 의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달호는 1970년 1월 새로 발족한 결핵연구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했다. 그해 실시된 제 2차 전국결핵실태조사 단장으로서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작위 추출된 도시와 농촌 86개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 국가결핵관리의 초석을 다지고

1971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제 2차 WHO서태평양지역 결핵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WHO 본부와 지역사무처에서 온 여러 고문관들과 27개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했으며 송달호는 보사부 담당관과 함께 한국의 공식 대표로 참가했다. 그리고 국내의 결핵전문가 여러 명과 WHO 주관으로 일본에서 결핵관리 연수를 마친 개발도상국 의사 19명도 옵서버로 참가했다.

1962년부터 가동된 보건소망을 통한 국가결핵관리체계는 결핵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국가시책의 가장 효과적인 시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학구에서 결핵관리 국제회의가 열린 것은 대내적으로는 결핵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회의에서 송달호는 개최국 대표로서 우리나라 결핵 관리실태와 그 동안 실시한 재가치료사업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국 대표들과 토론도 벌였다.

1972년 1월 유럽과 인도의 결핵사업을 시찰하고 돌아온 그는 결핵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결핵연구원이 새로 발족할 때 결핵협회 본부의 의무부와 중앙검사소를 연구원으로 옮겨 역학부 세균부 연수부로 개편 강화하면서 새 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송달호는 성품이 온화하고 인정이 많고 소탈하여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필자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항상 겸손하고 인내심도 강했다. 모든 사리 판단이 합리적이고 포용력과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서 직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필자는 그를 산 부처라고 부르기도 했다.

1973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동경의 뉴오파니 호텔에서 개최된 제 22차 국제항결핵연맹 세계대회에 연자로 참가한 그는 “한국의 BCG예방접종사업”과 “한국의 민간 항결핵단체의 역할”이란 두 개의 연제를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필자도 여러 명과 함께 참가했는데 그 때까지 한 번도 결핵관계 국제회의에 참가한 적이 없는 북한에서 3명의 대표가 참가한 것이 이채로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발표가 송달호의 국제무대에서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었다.

귀국 후인 1973년 12월 4일 드디어 결핵연구원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는데 그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필자가 그 때 총무부장으로 건축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와 자주 접촉이 있었는데, 1974년 2월 그는 폐암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청천병력이었다. 정부에서는 1974년 4월 7일 보건의 날에 그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는데 병상의 그를 대신해서 부인이 식장 단상에 올라갔다.

그 후 수술을 받고 초인적인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엄청난 통증도 끝내 진통제(몰핀)를 거부한 채 잘 참고 잘 견디었다. 이따금 문병을 가면 연구원 신축공사 진척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빨리 일어나서 새 건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투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필자는 직원들과 함께 그를 부축하고 차에 동승하여 공사 현장에 갔었는데 그는 무척 기뻐했으며 공사가 한창인 5층 건물을 바라보며 나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1974년 12월 17일 그는 결핵연구원 준공식을 3일 앞두고 가족과 그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도 헛되지 59세의 삶을 마감했다. 유족은 부인 홍진유(洪辰裕)여사와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 영욱(永燬)이 중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卍